

부패의 정치경제학

—콜롬비아 마약밀매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Political Economy of Corruption

—Drug Trafficking in Colombia—

조 성 권 (Cho, Sung Kwon) *

I. 서 론

1. 문제제기

1995년 7월 콜롬비아의 삼페르(Ernesto Samper Pizano)대통령이 당시 세계 최대의 코케인 공급조직인 칼리카르텔(Cali Cartel)로부터 1994년 대통령선거캠페인에서 약 60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 자금은 선거캠페인동안 삼페르의 캠페인 재정담당관이었던 메디나(Santiago Medina)가 선거총책이었던 보페로(Fernando Botero, 선거후 국방장관에 입각)에게 전달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삼페르대통령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공식부인하고 메디나와 보페로를 구속하는 선에서 무마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이 정치적 이슈는 국내외적으로 마약관련 정치부패의 전형적인 예와 함께 “마약부패”(narco 또는 drug corruption)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문제는 이 사건이 80년대 이래 급속히 부상한 콜롬비아의 마약밀매에서 파생되는 각종 부패행위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 한국의국어대 강사(政·博)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를 차지하고 부패가 없는 나라는 없다. 20여 개국이 넘는 중남미지역의 경우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사회적 부패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정도이다. (Little:1992, Maingot:1994) 특히 마약의 생산국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는 물론 중계국인 멕시코 등에서는 마약부패가 국가의 정치적 합법성의 위기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¹⁾ 특히 현재 콜롬비아 사회에 거의 만성화되어 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사회적 부패의 심각성에서 마약부패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²⁾ 그러나 80년대 이래 콜롬비아 사회의 제도화 된 부패의 원인을 마약에서만 찾는다면 정말 부분적이고 단순한 시각에 불과하다. 마약부패의 직접적 요인이 마약밀매에서 파생되었지만 그러한 마약밀매가 콜롬비아에서 나타나게 되는 정치경제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경제적 제도의 모순점이 마약밀매와 마약부패를 조장하는 근원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로서의 “부패의 역사성”에 대한 추적이 요구된다.

이 글의 목적은 콜롬비아의 마약밀매에서 파생된 마약부패의 원인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부패의 역사적 뿌리로서의 정치경제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특히 1958년 국민연합(FN: Fronte Nacional)의 형성 이후에 공고화된 정치적 양당주의(bipartism)와 경제적 후견주의(clientelism)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콜롬비아 사회의 정치경제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부패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었는가를 살펴본다. 70년대 마약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콜롬비아사회의 정치경제적 왜곡과 부패문화에서 파생된 역기능적 부산물이었다. 둘째, 실질적인 마약밀매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약부패의 유형과 원인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띠면서 발전하는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마약부패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정치적 영향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적인 요인들이 환류작용을 통해 마약부패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2. 마약부패의 개념

부패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모든 사회과학의 개념정의가 그러하듯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또한 변화하는 성질을 띄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시도하다 보면 어느덧 그 개념은 고도의

1) 멕시코의 경우 New York Times(1995/7/30/ p. 6; 1995/7/31/p. A6).

2) Arrieta et. al.(1993), pp.137-138.

추상성을 떨 수밖에 없다. 결국 방법론적으로 구체성과 추상성 사이에서 일정한 개념정의의 시도하다 보니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개념정의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확한 부패의 개념정의의 시도하지 않는다.³⁾ 개념정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인 부패의 유형을 선정하고 그 유형론의 한계 내에서 개념정의의 시도하는 방법을 택한다.

부패의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라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가 최근 김영종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김영종 : 1996). 이 글에서 논의하는 마약부패는 김영종 교수에 의해 분류된 유형 중에서 일종의 조직범죄의 행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조직범죄의 행위와는 달리 마약산업은 단기간에 막대한 불법적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황금의 비즈니스이다.⁴⁾ 이 때문에 마약부패는 범죄조직중에서도 초국가적인 전문적 마약조직에 의해 조직적 범죄의 형태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림 1>에서 보듯, 마약부패의 개념은 마약조직의 보스인 통제자가 자신의 마약조직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마약밀매에서 취득한 마약자금으로 부패자(corrupter)를 통해 부패인(corruptee)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부패자는 주로 마약조직 원이나 혹은 마약조직에게 고용된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말하고 부패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적 인물인 정치권력층이나 법집행기관에 종사하는 인물을 의미한다.

문제는 마약부패를 성질상 정치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이 보도에 의하면, 전세계적인 마약산업은 국제오일거래를 초과하고 오직 국제무기거래 다음인 연간 약 5,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한다.⁵⁾

이러한 막대한 불법적 경제규모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 마약조직들은 법적 혹은 정치적 보호막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마약부패는 초기의 범죄적 성질에서 궁극적으로 정치적 성질을 변화한다. 다시말하면, 마약부패의 핵심적 인물인 통제자는 권력브로커(power broker)의 역할을 주도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마약산업의 연장, 보호, 혹은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치권력층에 로비작업을 통해 정치권력과의 연계를 시도하여 법적 보호를 획득한다.⁶⁾ 이 과정에서 마약부패는 정치부패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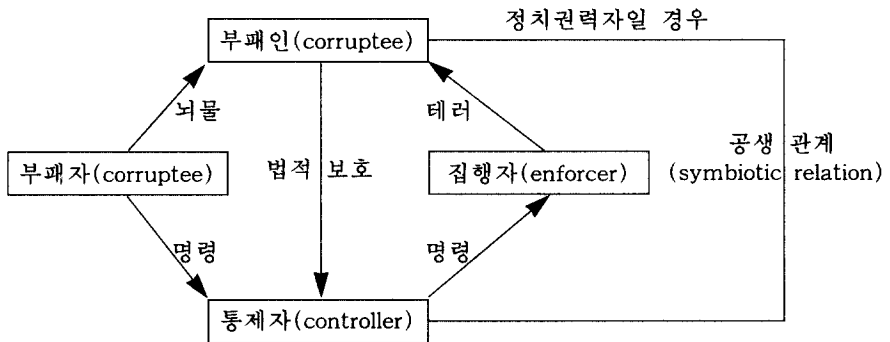
콜롬비아 마약부패의 성질상 특이한 점은 마약테러(narco-terrorism)가 마약부패와 별개의 존재가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기존의 조직범죄의 시각은 범죄조직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가능한 테러를 배제하고 뇌물의 수단을 동원하는 형태를

3) 부패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ardiner(1993)를 참고할 것.

4) 1993년에 콜롬비아 마약밀매의 수입은 최소한 200-250억 달러로 추산된다. Martz(1994), p.134

5) NYT(1990/2/21/A3).

6) Lee, III(1989), pp. 9~12.



〈그림 1〉 콜롬비아 마약부패의 기본적 구조

보여준다. 즉 테러는 법집행기관의 관심을 모으기 때문에 가능한 배제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뇌물과 테러는 어느 정도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여왔다. 그러나 콜롬비아 메데진 카르텔의 경우 뇌물과 테러는 양분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여왔다. 메데진카르텔에 법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콜롬비아 법집행기관원은 언제나 뇌물과 테러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왔다. “플라파 오 플로모”(plata o plomo: 돈 혹은 총알)는 이러한 콜롬비아 법집행기관원의 딜레마를 나타내는 유행어이다. 이처럼 자신의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는 상황하에서 테러는 뇌물제공의 유혹을 부추기는 가장 직접적인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마약부패의 환류작용에 의해 장기간 지속될 때 마약부패의 문화(culture of narco corruption)는 고착, 심화되어 현재처럼 사회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3. 기존연구에 대한 비평과 연구방법론

기존의 마약부패에 대한 연구는 서구(특히 미국)에서조차 범죄학, 정치학, 혹은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마약밀매의 부수적인 요소로서 소홀히 취급해왔다. 다시 말하면, 마약부패는 독립적인 주제로 연구하기보다는 조직범죄의 시각에서 종속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였다.(Abadinsky:1990, Kenney & Finckenauer:1995) 그러나 80년대이래 급속히 성장한 국내적 혹은 국지적 마약산업은 80년대 말과 90년대초 동구와 소련에서의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등장한 세계화 현상의 기류를 타고 빠르게 초국가적인 범죄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국제마약유통과 같은 초국가적인 범죄

현상이 첨단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현상은 기존의 범죄조직의 성질을 바꾸어 일부국가에서는 혁명적 좌익게릴라단체와 같은 정치적 성격의 조직에 비해 내부조직과 규모 면에서 능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콜롬비아의 양대 마약카르텔로 1981년 12월에 형성되어 1993년 12월에 붕괴된 메데진카르텔(Medellín Cartel)과 70년대 중반에 형성되어 1995년 7월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는 갈리카르텔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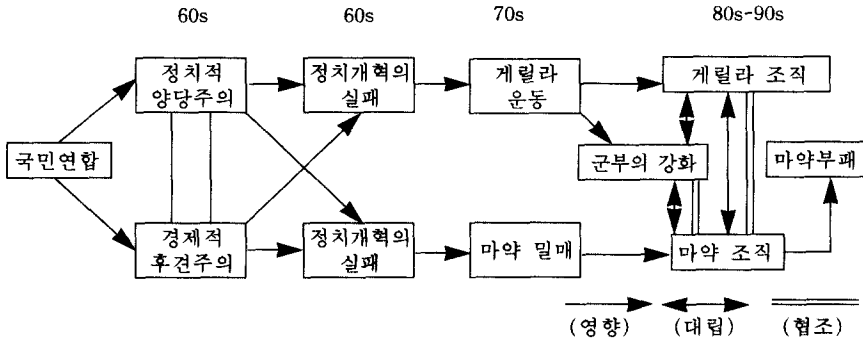
이러한 초국가적 규모로 성장한 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밀매와 그러한 행위에서 파생된 마약부패의 정도는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 그것은 일국의 민주적 정권을 합법성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외교마찰이나 분쟁의 소지까지 제공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 사이에 마약부패에 대해 독립적인 주제로 부각시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Nadelmann : 1987~1988, Dombois:1990, Maingot : 1994)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마약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주로 법집행기관의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어 마약부패의 근원이 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약점이 없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약점을 보완하여 마약부패의 직접적인 동인인 마약밀매의 등장요인을 정치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결국 마약부패나 마약밀매는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 사회구조와 사회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역기능적으로 형성된 사회현상이다. 이러한 역사-구조적 접근방법(historical structure approach)은 거시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⁷⁾

〈그림 2〉는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한 분석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글의 연구방법은 위의 역사-구조적인 거시적인 시각과 함께 그림 1에서 언급했듯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즉 마약밀매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마약부패의 유형을 연구함으로써 거시적인 접근방법에서 간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을 아울러 논의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미시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조직범죄의 시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Anlskiewicz : 1990, Goldstock : 1993)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죄조직(마약조직)의 궁극적 목표는 불법적 행위를 통한 경제이익과 영향력(권력)의 극대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극대화의 추구는 불법적 행위로 인한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적발의 위험부담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위험부담률의 최소화의 수단으로서 범죄조직은 뇌물과 같은 부패행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7) 역사-구조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Cardoso & Falleto(1979)을 볼 것.



II. 마약부패의 역사-구조적 요인들

콜롬비아는 현재 세계 최대의 불법코케인의 공급국가이다. 1970년대 초반 이래 콜롬비아의 지배적인 마약조직은 1993년말에 완전 붕괴된 메데진카르텔과 1995년 이래 대다수 보스급들이 정부에 자수하는 과정에서 점차 붕괴되고 있는 깔리카르텔이 있다. 80년대 이래 이 양대 카르텔은 상호 경쟁적 투쟁과정에서 세계 코케인 생산량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었던 초국가적인 마약조직들이었다. 현재 이 두 거대조직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조직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식적인 사실보다는 어떻게 이러한 일개 범죄조직으로서의 마약조직이 엄연히 군과 경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이 존재하는 국가에 20여년동안 조직을 유지하였고, 또한 메데진카르텔과 같이 10여년 넘게 국가기관에 정면 도전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나 하는 분석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요인들이 마약밀매의 성장과 함께 마약조직의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본다.

1. 정치적 요인

콜롬비아는 1810년대말 스페인 식민지 통치로부터 독립되었다. 1849년 처음으로 자유당과 보수당이 형성된 후 2차대전이 종식될 때까지 콜롬비아는 이 두 전통적 정당사이의 정치투쟁과 정치폭력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당주의에 의한 정치투쟁은 1948년부터 1958년까지 약 10년간의 대폭력(La Violencia)기간 최고조에 다다랐다. 1958년 두 전통적 정당은 양당사이의 만성적인 정치폭력을 종식시키고 정치협약을 통해 새로운 국민연합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정치폭력의 종식이라는 미명하에 양당의 정치연합은 실질적으로 양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집중 외에는 아무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 국민연합은 16년후인 1974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 이러한 양당주의에 의한 두 전통적 정당의 정치권력독식은 비공식적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⁸⁾

1958년 전통적인 양당주의 정신에 입각한 국민연합의 형성이 오늘날까지 피상적으로 정치안정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형성된 이러한 통제된 정치적 구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새로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시킨 역설적인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양당주의의 감추어진 속성은 두 전통적인 정당에 소속하지 못하거나 양당의 정치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못한 지식인들을 철저히 정치권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배제된 지식인들은 좌경화 되었고 곧 1959년 까스트로(Fidel Castro)의 쿠바혁명에 영향을 받아 혁명적 좌익게릴라로 변신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양당주의의 속성인 정치적 배제에 의한 좌익게릴라들의 형성과 활동은 60년대에는 미국의 반공주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군사원조계획(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4년 국민연합이 해체되면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당과 보수당은 부정선거의 소문하에 정치연합을 통해 재집권하게 되었다. 이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형성된 새로운 도시게릴라조직인 M-19의 형성을 계기로 기존의 좌익게릴라단체들(FARC, ELN, EPL)에게 새로운 활동의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활동을 개시한 게릴라조직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는 메데진(콜롬비아 제2의 도시)과 깔리(제3의 도시)에서 태동을 보이기 시작한 마약조직들을 간과하게 되었다. 마약조직에 대한 관심은 게릴라 소탕을 제1의 국가정책에 둔 정부와 군부에 의해 언제나 2순위에 불과하였다.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게릴라의 태동은 정치와 경제엘리트들로 하여금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라는 이름 하에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는 미국의

8) Berry & Solan(1980), p. 442.

군사원조와 함께 콜롬비아군부를 강화시켜 주는 요인이 되었고, 결국 점차 정치권에 예측되지 않는 군부의 제도적 자치(institutional autonomy)를 허용하였고, 70년대 말경에는 군부가 독자적으로 예산결정권을 가지는 정치적 자치(political autonomy)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부의 자치력의 확대는 군부엘리트가 정치와 경제엘리트들과 함께 지배집단의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문제는 반공이라는 미명하의 농촌에서 게릴라소탕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군부의 인권남용사태가 빈발하게 되었다. 이는 일부 농민들로 하여금 좌익게릴라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게릴라 보호하에 마약재배를 종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콜롬비아에서 게릴라조직과 마약조직은 상호 단기적 목적에 따라 협조와 투쟁을 벌이는 특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M-19게릴라조직은 80년대초 메데진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즉 M-19는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11월 당시 메데진지역에서 지배적인 마약두목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오초아형제(Ochoa brothers)의 누이동생을 납치하였다. 이 납치사건은 메데진 지역의 약 200백여 명의 마약밀매자들로 하여금 게릴라조직에게 대항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곧 메데진카르텔의 모체가 된 MAS(Muerte a Secuestradores: 납치자에게 죽음을)가 형성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납치사건을 계기로 메데진카르텔과 M-19는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상에 M-19가 무장해제할 때까지 양자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는 1985년 11월 M-19는 메데진카르텔로부터 500백만 달러를 받고 미국으로 인도될 마약밀매인에 대한 서류를 파괴하기 위해 대법원청사를 점령하여 약 6,000건의 서류를 파괴시켰다.⁹⁾

메데진카르텔과 콜롬비아 최대의 게릴라조직인 FARC와의 관계는 처음에 우호적 관계에서 80년대중반 이후부터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였다. 처음의 협조적인 관계는 FARC가 밀림 지역에 위치한 카르텔의 코케인정제소를 정부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약 10%를 혁명세금으로 양도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¹⁰⁾ 그러나 점차 FARC는 더 많은 혁명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카르텔의 코케인정제소를 무력으로 점수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서 양자사이에는 상호투쟁의 관계로 변질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FARC는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혁명적 기반이 되는 농촌지역의 마약재배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게릴라조직원들이 마약재배에 관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카르텔은 게릴라조직과의 상호 협조와 투쟁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카르텔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9) Castillo(1987), pp. 188~189.

10)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Latin America(FBIS-LA), 1984/10/31.

2. 경제적 요인

콜롬비아는 저발전국가들의 전형적인 패턴인 단순재배경작(mono-culture)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콜롬비아의 경제구조는 현재까지 광산물(석유, 석탄, 에메랄드, 금)과 농산물(커피, 담배, 꽃, 바나나) 등의 1차산품의 수출을 통해 대외적 무역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롬비아 정치사가 보여주듯,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하에서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치불안정과 정치투쟁은 물론 정권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왔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재배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농지개혁, 노동법과 같은 새로운 경제개혁을 시도하는 정책들이 경제적 후견주의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점이다.¹¹⁾

1849년 이래 콜롬비아 정치사는 공식적인 정치구조인 양당주의와 비공식적 정치구조인 후견주의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¹²⁾ 즉 양당주의가 중앙정치의 공식구조라고 한다면 후견주의는 중앙정치를 보조하는 지방정치의 비공식구조라고 하겠다. 이러한 후견주의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농촌자본주의에서 상업 및 산업자본주의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난 경제엘리트(gremios)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커피생산 지주 연합체(FEDERACAFE)와 산업 기업인 연합체(ANDI)가 형성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 점차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인 지배집단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의 결과는 경제엘리트들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자나 농민에 대한 경제적인 후견주의의 형성이다.

¹³⁾ 이 새로운 후견주의는 1958년 이후 콜롬비아의 정치경제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1958년 이후 양당주의의 원리에 의해 자유당과 보수당은 모든 공공분야의 직업에 대해 양당이 각각 50%의 헌법적인 기득권이 보장된다.¹⁴⁾ 문제는 이러한 직업에 대한 할당이 대부분은 경제적 후견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후견주의는 60년대 이래 최근까지 콜롬비아 정치경제체계를 지방에서 중앙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또한 경제엘리트사 이의 언론독점과 상호결혼으로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¹⁵⁾ 이러한 후견주의는 관료적 책임성의 결핍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을 드러내

11) Pearce(1990), pp. 184~187. 여기서 피어스는 후견주의에 의한 통제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켜 결국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각종 시도가 실패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12) 후견주의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할 것. Rossi & Plano(1992), pp. 47~48. 그리고 콜롬비아정치에서 후견주의의 속성에 대한 비판적 해석은 다음을 볼 것. Miranda(1977).

13) Miranda(1977), p.53. Pearce는 이러한 경제적 후견주의를 “후견주의의 새로운 형태”(a new form of clientelism)라고 불렀다.

14) Osterling(1989), p. 165.

15) Ibid, pp. 167~168.

었다.¹⁶⁾ 결국 이러한 정부정책의 각종 비효율성에 의한 각종 구조적 개혁(국민연합기간에 시도된 농지개혁과 탈세, 횡령, 뇌물, 불법계약등의 정치부패를 타파하려는 정치개혁, 그리고 계급간의 수직이동을 허용하는 사회개혁등)의 실패를 야기시켰다.

구조적인 정치경제개혁의 실패는 콜롬비아의 단순재배경제구조를 탈피하기 힘들게 만들어 선진국과의 대외무역에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만들었다.¹⁷⁾

커피와 같은 1차산품에 의존하는 콜롬비아경제구조는 해외에서의 커피가격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파생된 국제수지의 적자는 주기적으로 콜롬비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곤 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기적인 경제불안정을 탈피하기 위해 막대한 이익을 놓고 있는 불법마약밀매를 방조 혹은 조장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마약밀매에서 얻은 마약달러를 중앙은행이 콜롬비아 페소화로 쉽게 전환하여줌으로서 자연스럽게 불법적 마약달러를 돈세탁하여 주는 제도적 방법으로 실행하였다.¹⁸⁾

예를 들면, 1975년 세계적인 제1차 석유파동시 국제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불안정은 불법적 수출품인 마리화나밀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¹⁹⁾ 이러한 패턴은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 경제개혁의 실패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었다. 개혁의 실패는 만성적인 실업과 부의 재분배과정에 소외된 하층계급의 빈곤화를 구조화시켰고, 이러한 빈곤과 실업의 구조화는 농민들로 하여금 수익성이 높은 마약작물의 재배로 유인시켰다.²⁰⁾ 또한 빈곤과 실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만들었다. 이들 대부분은 마약조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주로 시카리오(sicario: 고용된 살인청부업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16) Pearce(1990), pp.186~187.

17) Miranda(1977), p. 38.

18) Ventanilla Siniestra 제도는 중앙은행에 설치된 “왼쪽 창구”의 의미로 미첼센(López Michelsen: 1974~1978) 정권부터 실행되었는데 불법적 마약밀매에서 획득

한 검은 돈을 공식경제에 흡수하기 위해 정부는 검은 돈의 출처를 조사함이 없이 조건 없이 페소화로 교환해 줌으로서 일종의 마약조직에게 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 Lupsha(1981), p. 61.

20) 농민들은 전통적인 노동으로 하루에 2~3달러를 벌지만 마리화나나 코카나무를 재 배할 경우 하루에 8달러를 벌 수 있다. The Economist(1978/12/9), p. 75.

21) Pearce(1990), passim in pp. 69~187.

22) 베탄쿠르정부(Belisario Betancur Cuartas:1982-1986)동안에 마약돈의 합법화를 선언하였다.

요약하면, 1958년 국민연합의 성립후 양당주의와 후견주의에 의해 파생된 왜곡된 정치경제구조는 60년대와 70년대 동안 불법적 사회(게릴라 및 마약조직의 등장)가 만연되는 사회분위기의 형성에 공헌하였다.²¹⁾ 특히 80년대에 이르러 점증하는 게릴라활동에 의한 군사비의 지출증가와 정치불안정, 80년대초 국제석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국제경제위기와 설상가상으로 하락된 국제커피가격의 하락 등의 경제불안정은 콜롬비아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약밀매를 필요악으로 인식하였고, 결국 마약밀매에서 나오는 막대한 불법마약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하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조치는 마약카르텔의 정치경제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더불어 양당주의와 후견주의는 공공분야의 직업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뇌물이 관행화 되는 부패문화를 대동시켰다. 이러한 부패문화의 형성은 후에 마약밀매를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Ⅲ. 마약유통과정에서 마약부패의 유형

천연마약(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등은 공식경제에서 상품의 순환과정과 마찬가지로 생산, 분배, 소비, 재생산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러한 마약이 불법적 상품으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마약의 비공식 순환과정을 연구함은 각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마약부패의 실체를 살펴보는 데 필수적이다.

1. 생산단계에서의 부패

생산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민연합이 성립된 이래 콜롬비아의 현대마약사를 간략히 논의하자. 이는 일반적으로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1950년말부터 1960년말까지의 밀수시기; (2) 1960년대말부터 1970년말까지의 마리화나밀매시기; (3)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말까지 코카인밀매시기; (4) 1980년말부터 최근까지 코카인밀매에서 점차 헤로인 밀매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시기이다(Kleiman & Caulkins:1992, Claudio:1992). 60년대의 밀수시기(콜롬비아의 커피, 금, 에메랄드와 미국의 사치품)는 콜롬비아 북부항구에 위치한 가르따헤나(Cartagena)를 중심으로 형성한 밀수조직에 의해 주도되었다. 70년대는 60년대의 밀수조직이 마리화나조직으로 탈바꿈하면서 북대서양 카르텔(North Atlantic

21) Pearce(1990), passim in pp. 69~187.

22) 베탄쿠르정부(Belisario Betancur Cuartas:1982-1986)동안에 마약돈의 합법화를 선언하였다.

Coast Cartel)을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²³⁾ 80년대는 코케인밀매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콜롬비아 북부의 메데진지방을 중심으로 80년대초에 형성된 메데진카르텔에 의해 장악되었다.²⁴⁾ 북대서양 카르텔은 메데진카르텔과 연계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코케인운송의 주요 담당자가 되었다.²⁵⁾ 마지막으로 90년대초 메데진카르텔이 붕괴되면서 콜롬비아 남부의 깔리지방에서 70년대 말경에 형성된 깔리카르텔이 지배적인 위치로 등장하였다. 최근 깔리조직의 두목급들이 대부분 자수 혹은 체포됨으로서 조직의 붕괴가 예상되고 있다.

중남미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되어 유통되는 코케인과 헤로인은 여러 나라가 관련된 일종의 분업화된 초국가적 범죄행태를 보이고 있다.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코카나나 양귀비 등은 재배국가에서 1차적으로 화학공정을 거쳐 약 80%는 콜롬비아 마약조직들에 의해 최종적인 마약(코케인과 헤로인)으로 생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최종적인 화학공정과정에서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콜롬비아 서남부의 밀림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는 마약조직, 농민, 게릴라 및 군과 복잡한 형태의 투쟁과 범죄행위등이 발생하는 것이다.(Steinitz:1987) 예를 들면, 마약조직과 불법적으로 마약을 재배하는 농민들과의 밀착, 마약조직과 게릴라 및 군과의 협조와 투쟁, 농민에 대한 게릴라와 군의 테러등이 발생한다.

중요한 점은 마약조직과 지역군과의 밀착행위에서 파생되는 부패이다. 이러한 마약부패의 유형은 전형적으로 마약조직이 지역주둔군 사령관에게 매달 일정한 액수(약 5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군이 마약정제소를 보호하는 행태이다. 예를 들면, 마약정제소를 급습하는 대마약경찰군(일명 엘리트경찰군)으로부터 지역군은 마약조직에 급습정보를 사전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콜롬비아 저널리스트인 두잔(Mar a Jimena Duz n)과 메데진카르텔의 두목인 에스꼬바르의 변호인이었던 아달베르토(Adalberto)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듯, 콜롬비아 군과 경찰군의 반은 에스꼬바르를 사살하려고 하지만 나머지 반은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군과 경찰군의 마약부패의 정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²⁶⁾

24) 마리카나에서 코케인밀매로의 전환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Gugliotta & Leen (1989), p. 22, Miami Herald (1989/2/8).

25) Castillo(1991), p. 44.

26) Duz n(1994), p. 189.

2. 운송 및 분배단계에서의 부패

최대 마약소비국인 미국으로의 마약운송은 70년대 중반에는 인편, 70년대 말경부터는 선박, 그리고 80년대초부터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대량수송체계로 바뀌었다. 이러한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콜롬비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육로에서의 경찰검문소, 해로에서의 세관, 그리고 항공로를 이용할 경우 콜롬비아 공군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부패이다. 문제는 이런 곳에 근무하는 군, 경찰, 혹은 세관원들의 봉급이 마약조직이 제공하는 막대한 뇌물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는 사실이다. 위관장교(1991년도 기준 대위봉급의 경우)의 한달 봉급이 겨우 300달러정도임을 감안할 때 마약조직이 법집행기관에 적발될 시 제공하는 뇌물은 봉급의 10년치가 훨씬 넘는 5만달러에서 50만달러(카르텔의 보스급의 적발시)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제공을 거의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뇌물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거부시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보복테러를 당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콜롬비아 국외의 마약운송의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이다.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운송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마약운송의 경우 연료공급을 위해 반드시 중간기착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간기착지는 80년대에는 카리브해 도서국가, 파나마, 니카라과아 등을 이용하였으나, 90년대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로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마약들이 멕시코를 필수적 중간유통지로 간주하고 있다. 이 중계지를 거쳐가는 운송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의 유형은 현지의 정치권력을 지닌 인물들에 마약조직이 뇌물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80년대 중반경 메데진카르텔의 리더중의 하나였던 레데르(Carlos Lehder Rivas, 1987년 콜롬비아에서 체포후 미국으로 인도)가 바하마 수상(Lynden Pindling)을 매수하여 바하마군도의 하나의 섬(Norman Cay)을 통제로 매입하여 이곳을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밀매의 항공기중간기착지로 이용하였다.²⁷⁾ 또 다른 예는 80년대초 당시 파나마의 군 첩보사령관(후에 군 총사령관, 대통령)이었던 노리에가(Manuel Antonio Noriega)가 메데진카르텔의 총두목인 에스꼬바르에 매수되어 파나마시의 근교를 마약운송 비행기의 연료주입을 위한 중간기착지로 이용하였다. 멕시코에서의 예는 1991년 11월 멕시코의 베라크루스(Veracruz) 항구의 근교에서 콜롬비아 마약수송기의 중간착륙시 멕시코 마약단속경찰관 7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지역군에 의해 사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⁸⁾ 이 사건의 발생전

27) Castillo(1987), p. 95.

28) Lupsha(1992), p.192.

멕시코 연방경찰관리가 지역군의 사령관(Gel. Alfredo Moran Acevedo)에 미리 급습에 대한 사전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을 볼 때 멕시코 지역군과 콜롬비아 마약조직과의 연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초국가적 마약부패의 전형적인 유형들이다.

3. 소비단계에서의 부패

콜롬비아산 마약의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경우 불법마약밀매에 개입한 경찰중에 최소한 30%가 부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²⁹⁾ 이중에서 콜롬비아 마약조직과 관련된 부패의 사례는 1995년 6월에 적발된 전직 미법무성 형사국 외사과장(Michael Abbell)과 2명의 전직 연방검찰관등이 깔리조직과 연계된 사건이다.³⁰⁾

사실 콜롬비아 마약조직에게 최대의 두려움은 1979년 미국과 콜롬비아사이에 체결된 마약 밀매자 범죄인도협정(extradition treaty, 1991년 콜롬비아 신헌법에 의해 무효화)이다.³¹⁾ 이 협정에 의하면 미국에서 기소된 콜롬비아 마약밀매자는 체포 즉시 미국으로 압송할 수 있다. 이 협정에 의해 1984년 스페인에서 체포된 메데진카르텔의 보스중의 하나였던 오초아(Jorge Luis Ochoa)와 깔리조직의 총두목이었던 로드리게스(Gilberto Rodriguez Orejuela)가 스페인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인도될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콜롬비아에 인도되어 콜롬비아 재판정에서 판사를 매수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곧 석방되었다. 문제는 이들이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고 콜롬비아로 인도된 의문점이다.

1995년 6월에 적발된 사건은 바로 이 의문점이 풀어 주었다. 다른 아닌 당시 해외 마약법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직책을 책임지고 있었던 법무부 외사과장이 깔리조직의 두목에게 매수되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피하는 법률조언을 해주었고, 콜롬비아 법정에서 나타나 미국으로의 인도를 피하는 법률조언을 제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인도된 깔리조직의 마약범에게 그들의 두목에 관해서 침묵하도록 그들의 가족을 매수하는 일에도 간여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1988년 미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콜롬비아 마약조직으로 하여금 범인인도협정에 좀 더 쉽게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법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기소된 두명의 전직 연방검찰관들의 혐의는 마약돈세탁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마약부패사건은 마약조직이 미 법집행기관의 핵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29) Leavitt(1995), p.22.

30) NYT(1995/6/6/A6, A20).

31) Miami Herald(1987/2/9).

4. 재생산단계에서의 부패

이 단계에서 파생되는 부패의 전형은 불법마약자금을 합법적 돈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돈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마약자금은 보통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의 마이애미에 있는 은행들이나, 스위스, 파나마 등지의 은행에서 돈세탁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미연방법(Bank Secrecy Act)은 10,000달러 이상의 예금자는 반드시 미연방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현금거래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를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전문적 돈세탁자들(주로 변호사로 세탁액수의 3%정도를 커미션으로 받음)은 은행원을 매수하는 형태의 부패를 선호한다. 이렇게 세탁된 마약돈은 콜롬비아 마약조직에 전달되고 마약조직들은 이 세탁된 마약달러를 콜롬비아 중앙은행에서 폐소화로 교환한다. 마약조직들은 이 돈을 일부분 마약의 재생산에 과정에 투자하거나, 거대한 농장을 사들이거나, 혹은 자신들의 불법적 마약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 부관료, 의회의 상·하원의원, 사법부의 판검사, 법집행기관인 군경, 비즈니스분야, 저널리스트, 각종 개인변호사 비용 등에 뇌물을 제공하는데 사용한다.³²⁾

마약조직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최고권력기관(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위원회, 의회, 사법부)과 마약조직을 단속하는 법집행기관 군, 경찰 및 대통령직속 첩보기관인 DAS)에 대한 마약부패이다.

법집행기관에 의한 마약부패의 유형중 전형적인 것은 뇌물을 제공받고 단속과 집행에 대한 묵인 혹은 중대한 정보를 마약조직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앞에서 지적했듯, 법집행기관에 종사하는 중하층의 판검사 및 변호사, 군인, 경찰, 세관원들의 봉급이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마약조직으로부터 뇌물제공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³³⁾

이들에게 더욱 큰 딜레마는 “빨라파 오 빨로모”라는 유행어에서 나타나듯 뇌물과 죽음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마약밀매의 유통구조에서 파생된 다양한 유형의 마약부패는 궁극적으로 마약조직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약밀매를 확대재생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역사-구조적으로 유산된 콜롬비아의 정치적 양당주의와 경제적 후견주의의 토양에서 더욱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왜 메데진카르텔이 10년 넘게 콜롬비아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있었던 주요 변수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80년 이후 콜롬비아 사회가 마약달러에 의한 사회적 부패의 심화과정에 대한 이해의 핵심적인 설명변수가 되는 것이다.

32) 상세한 내용은 El Expectador(1988/1/10)를 참고할 것.

33) Craig(1985), p.114.

IV. 마약부패의 정치적 영향

콜롬비아는 국민연합이 공식 해체된 1974년 이래 지금까지 마약정책에 관한 대체적으로 이중정책을 취하였다. 한마디로 마약밀매에는 온건정책(carrot policy), 마약테러에는 강경정책(stick policy)이다. 로페즈 미첼센정권(Alfonso Lopez Michelsen: 1974~1978)은 제1차 국제오일가격의 상승에 의한 경제위기를 마리카나밀매로 인한 불법수입으로 극복하였고, 투르바이정권(Julio Turbay Ayala: 1978~1982)은 혁명적 좌익계열 단체들의 활동 재개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점증하는 코케인밀매는 2차적인 문제로 간주하였다. 오히려 80년대초 제2차 국제오일가격의 상승에 의한 경제위기에 마약밀매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베탄꾸르정권(Belisario Betancur Cuartas: 1982~1986)은 계릴라와의 정치적 평화협상에 초점을 두어 마약밀매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에서 제외되었다. 오히려 1982년 12월 불법적 마약자금에 대한 포괄적 사면을 내리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조치는 메데진카르텔의 향후 정치부패와 정치폭력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미국과 체결한 마약범인도협정에 반대하여 메데진카르텔은 1984년 4월 법무장관(Rodrigo Lara Bonilla)의 암살을 시작으로 대정부투쟁을 선언하였다. 이 때부터 정부는 메데진카르텔을 공적(public enemy)으로 마약밀매를 마약테러의 근원으로 인식하며 비로소 정치적 문제를 간주하기 시작하였다.³⁴⁾

바르코정권(Virgilio Barco Vargas: 1986~1990)하에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고 그리고 계릴라와의 평화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우선 순위는 도시와 농촌등 콜롬비아 전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마약테러였다. 특히 사법부의 판사들에 대한 마약테러는 1987년 6월 대법원으로 하여금 1986년에 바르코대통령이 재서명한 미국과의 마약범인도협정을 위헌판정 하도록 압력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바르코대통령은 이미 의회와 사법부가 마약조직에 의해 부패되었음을 알고 위헌판정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1988년 9월 정부와 마약조직과의 평화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표를 하였다.³⁵⁾

그러나 바르코의 발언은 미국의 외교적 압력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1989년 8월 여당 대통령후보인 갈란(Luis Galán Sarmiento)의 암살을 계기로 마약테러는 최고조에 다다랐다. 결국 바르코는 1989년 12월 마약조직과의 대화의 재개를 선언하지만 미국은 이에 항의의 표시로 1990년 1월 콜롬비아 해역을 봉쇄하기 위해 항공모함전단을 파견하여 양국간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바르코는 대통령직에 물러나기 직전 비로소 마약테러를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암살된 갈란의 선거총책이었던 가비리아(C sar Gaviria Turjillo:1990-1994)는 취임하자마자 마약테러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하였다.³⁶⁾ 그러나 그는 게릴라 단체(M-19와 EPL)와의 평화협상을 성공시키자 곧 메데진카르텔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카르텔의 두목급들을 대부분 정부당국에 자수하도록 만들었다.³⁷⁾ 그리고 1991년 6월 마약범인도협정을 무효화 하는 신헌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의회의 대다수 의원은 마약조직에게 뇌물을 제공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가비리아 정권은 마약정책에는 긍정적이고 마약테러에는 부정적인 이중적인 정책을 지향하였다. 이것은 가비리아가 마약문제는 생산국의 책임이 아닌 소비국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³⁸⁾

결국 이러한 마약에 대한 이중정책은 감옥에 있는 에스꼬바르로 하여금 여전히 마약밀매를 통솔하도록 간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1992년 7월 에스꼬바르가 갈리조조직에 의한 암살 위협에 정부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여 간수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탈출한 후 1993년 12월 사살될 때까지 대정부테러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삼페르(Ernesto Samper Pizano:1994~1998)대통령이 갈리조조직으로부터 약 6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수취했다는 설은 위에서 논의한 1974년 이래 역대 콜롬비아 정권의 마약밀매에 대한 이중정책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즉 마약밀매와 마약테러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마약조직의 목표가 경제수익의 극대화라면 마약테러는 마약밀매의 수단인 동시에 또한 불법적 부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마약밀매는 묵인하고 마약테러는 묵인하지 못하는 콜롬비아정부의 마약정책은 처음부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위에서 지적했듯 마약부패의 가장 큰 문제는 합법적 선거에 의해 당선된 민주적 정권이 마약부패의 감추어진 요인으로서의 마약테러에 의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베판꾸르 정권하에서는 “정치적 문제”, 바르꼬정권 하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가비리아 정권하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의 표현처럼 그 강도에 있어 점차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삼페르대통령의 경우는 마약부패가 얼마나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삼페르대통령의 경우는 마약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정치적 문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는 물론 정권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합법성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체르닉이 적절히 예측하듯, 그는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양당의 지도자들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³⁹⁾ 이것은 곧 그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각종 개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36) *El Tiempo*(1990/8/8).

37) Gaviria정권의 마약조직에 대한 유화정책은 Lee(1991)를 참고할 것.

38) Lee(1991), p.246.

한편 그는 군부예로의 의존을 강화시킬 것이고 이는 곧 게릴라(FARC, ELN)와의 평화협상의 중단(정부평화협상자인 Carlos Holmes Trujillo가 결국 사임)과 대신 군부자치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래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부상하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약부패는 대외적으로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한 문제는 마약돈세탁과 뇌물 등의 수법에서 알 수 있듯 국제정치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⁴⁰⁾ 최근 클린턴행정부는 콜롬비아에 대한 마약박멸의 원조안을 부결시켰다. 미국은 독자적인 마약정책을 수립한다고 한다.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보듯 미군이 직접 마약과의 전쟁에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V. 결론 및 정책제시

이 글은 현재 콜롬비아에서 마약밀매에 의한 부패의 원인을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하나는 거시적 측면에서 콜롬비아사회에 역사-구조적으로 제도화된 정치적 양당주의와 경제적 후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추적하였다.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마약밀매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부패유형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역대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정책에 대한 이중성이 이러한 마약부패의 원인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처럼 부패는 마약조직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매커니즘이었다.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일개 마약조직이 국가공권력에 정면도전할 정도로 세력이 강대해졌다.

부패의 원인에 대한 통찰 없이 이에 대한 대응정책은 제시될 수 없다. 위에서 논의했듯, 부패의 원인이 다면적이기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만연된 마약부패를 치유할 단순한 정책은 없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마약밀매의 유통단속(특히, 유통을 통제하는 범죄조직의 단속에 초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법집행기관의 시각은 최선의 정책중 하나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경찰수사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책은 내적 요인에서 발견해야만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행복중 물질적 부가 하나의 요건이라면, 이러한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통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는 제도화된 통로가 돼야만 한다. 이러한 제도화된 사회에서만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 하에서 정치

39) Chernick(1996), p. 77.

40) Little(1992), pp. 55~57.

정치 및 경제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풍토 하에서 공정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결국 실업과 빈곤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콜롬비아에서처럼 저소득층의 농민들에게 코카나무대신 대체작물을 강요하지 않아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화된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성적 인간의 판단 하에서는 대체작물대신 코카나무의 재배에서 오는 위험부담률이 높을 때 코카나무의 경작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영종(1996), 부패학 : 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 Abadinsky(1990), Howard. *Organized Crime*. Nelson-Hall.
- Anlsklewicz, Rick.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Historical Trends and Contemporary Issues".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Analysis Digest*, Vol. 5, No. 2 (Winter 1990).
- Arrieta, Carlos G., et al. *Narcotrafico en Colombia*. Bogota, Colombia: Univ. de los Andes, 1993.
- Berry, R. Albert. & Mauricio Solaun. "Notes toward an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Front". In *Politics of Compromise* edited by R. Albert Berry et al. Transaction Books, 1980.
- Chernick, Mark W. "Colombia's Fault Lines". *Current History*, February 1996.
- Cardoso, Fernando Henrique & Enzo Falet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Univ. of California Press, 1979.
- Castillo, Fabio. *Los Jinetes de la Coca na*. Bogota, Colombia: Editorial Documentos Period sticos, 1987.
- _____, *La Coca Nostra*. Bogota, Colombia: Editorial Documentos Period sticos, 1991.
- Craig, "Illicit Drug Traffic and U.S. Latin American Rela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Fall 1985.
- Dombois(1990), Rainer. "Por qu Florece la Economia de la Coca na Justament en Colombia". In *Economiay Politica del Narcotrafico*. Bogota, Colombia: C.E.I.

- Duzan, Maria J. *Death Beat: A Colombia Journalist's Life Inside the Cocaine Wars*.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4.
- Gardiner(1993), John A. "Defining Corruption". *Corruption and Reform*, Vol. 7.
- Goldstock(1993), Ronald.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Corruption and Reform*, Vol. 7.
- Chernick(1996), Mark W. "Colombia's Fault Lines". *Current History*, February.
- Cardoso(1979), Fernando Henrique & Enzo Falet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Univ. of California Press.
- Castillo(1987), Fabio. *Los Jinetes de la Cocaína*. Bogota, Colombia: Editorial Documentos Periodicos.
- _____(1991), *La Coca Nostra*. Bogota, Colombia: Editorial Documentos Periodicos.
- Craig(1985), "Illicit Drug Traffic and U.S. Latin American Rela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Fall.
- Dombois(1990), Rainer. "Por qué Florece la Economía de la Cocaína Justamente en Colombia". In *Economía y Política del Narcotráfico*. Bogota, Colombia: C.E.I.,
- Duzan, Maria J. *Death Beat*(1994): *A Colombia Journalist's Life Inside the Cocaine Wars*. Harper Collins Publishers.
- Gardiner, John A. "Defining Corruption". *Corruption and Reform*, Vol. 7, (1993).
- Goldstock(1993), Ronald.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Corruption and Reform*, Vol. 7.